

## 2025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형> 심의 총평

2025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형>에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프로젝트형>의 신청건수가 191건에 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지원자의 시선과 관점으로 지역문화를 해석하고 있는지, 지역문화 활성화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여 지역문화를 재구성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설계도 세심히 보았습니다. 지역문화에서는 지역과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상화 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콘텐츠가 아닌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가져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문화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프로젝트의 다양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접근한 프로젝트, 생활문화 차원에서 접근한 프로젝트,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워크숍 형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경우를 골고루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계획서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역자원을 소재로만 활용한 경우입니다. 지역자원을 가져왔다고 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는 아닙니다. 지역자원을 소재나 배경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가 중심의 창작 활동에 머문 경우, 과정 없이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결과만 있는 경우 또한 아쉬웠습니다. 계획서에서 지향하는 바와 예산이 일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획서에서는 과정을 강조했는데 예산은 행사예산이 대부분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이런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까였습니다. 한 번의 지원과 지원사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도성, 지역주민 주체성을 만들어가려 하는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이 대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때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하나하나 모여 경기 지역문화를 만들고 쌓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경기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하며 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응원하겠습니다.

2025. 4. 2.

심의위원: 강보라, 우지연, 지영관